

2018년 여행시장 전망

- ▶ '18년 3월 15일(목) 배포
- ▶ 자료 총 3매

기 관	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
책 임	김형곤 소장/Ph.D/대학원 교수
문 의	김민화 연구원/Ph.D
이 메 일	kimmh@consumerinsight.kr
연 락 처	02) 6004-7643

<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·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>

2018년, 여행시장은 성장하나 여행수지는 악화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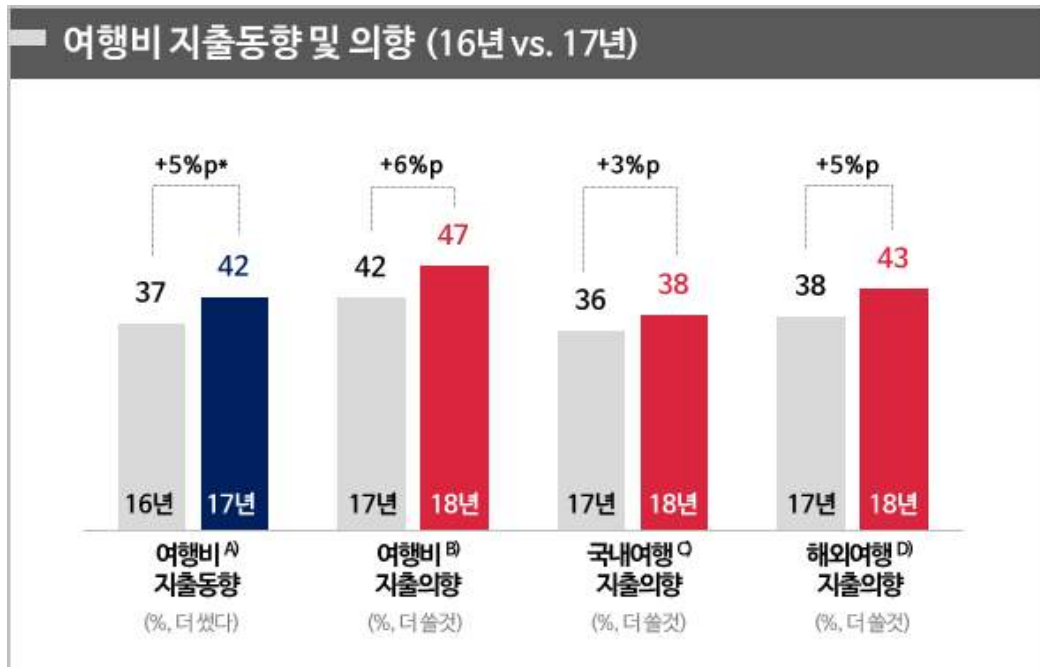
- 여행소비 지출 증가할 것
- 국내보다는 해외여행에의 지출이 더 증가할 것
- 국내여행지 관심은 수도권 증가, 전남/광주 감소
- 해외는 서유럽/북유럽 감소, 일본/동남아 증가

2017년 1년간 매주 500명(52주, 2만 6천명)에게 국내·해외여행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. 42%가 지난 1년간(2017년) 그 전 해보다 여행비를 더 지출했고, 47%는 금년(2018년)에는 작년보다 더 지출할 것이라 했다. 금년 여행비가 더 늘 것이라는 예상은 국내 38%, 해외 43%로 해외가 더 높았다. 여행비 지출의 증가가 해외여행이 더 크고, 여행수지는 더 나빠질 것임을 암시한다. 여행 목적지는 근거리·저비용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었다.

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 리서치 전문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기획한 ‘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’(2015년 8월 시작)에서 2017년 1년간의 결과를 정리하고 2016년 결과와 비교했다.

2017년 여행비 지출동향은 ‘전년보다 더 썼다’가 42%로 ’16년(37%)보다 5%p 높아 작년 한해 여행비 지출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[그림1]. 2018년의 여행비 지출의 변화를 예상해 보면, 향후 1년간 ‘더 쓰게 될 것’이 ’16년 42%에서 ’17년 47%로 6%p 상승해 여행에의 지출이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. 해외여행에 ‘더 쓰게 될 것’은 43%로 국내여행 38%보다 높았고, ’16년에 비해 증가폭도 5%p 더 컸다. 해외여행에의 지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, 수지적자 역시 커질 것이다.

[그림1] 여행비 지출동향 및 의향



A)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국내·해외 합하여 관광·여행비로 쓴 비용이 그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됩니까?

B) 국내·해외여행을 합해, C) 국내여행만 보면, D) 해외여행만 보면.

향후 1년간 쓸 관광·여행비가 지난 1년에 비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?

5점 척도: 훨씬더 많이 (1) ~ 훨씬더 적게 (5), [% 더 썼다/더 쓸것 = % 훨씬더 많이 (1) + % 약간더 많이 (2)]

* (17년-16년)으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 계산했으며, 정수로 제시해 부정확해 보일 수 있음

여행지 관심도에도 큰 변화를 보였다<표1>. 가보고 싶은 생각이 예전에 비해 ‘더 커졌다’라는 응답이 국내는 제주 64%, 강원 52%, 부산 46%, 전라남도/광주 29% 순으로 상위권의 순위가 '16년도와 일치했으나 중·하위권은 다소 달랐다. 수도권인 경기/인천(6%p)과 서울(3%p)의 관심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, 전남/광주(-3%p)와 경남/울산(-2%p)은 감소했다. 이는 국내여행의 가장 큰 고객인 수도권 거주자들이 근거리 목적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이다.

해외여행지 관심도에도 변화가 있었다. 가장 관심이 높은 곳은 대양주와 남유럽이 각각 53%, 서유럽/북유럽 52%, 동유럽 49% 순이었다. '16년과 비교하면, 남유럽(4%p)·일본(3%p)·동남아시아(2%p)는 증가했고, 서유럽/북유럽·미국/캐나다(각각 -6%p)는 감소했다. 국내여행과 마찬가지로 근거리·저비용 여행의 선호 성향이 있음을 보여준다. 중국은 관심도가 22%에서 16%로 전년의 2/3 수준으로 줄며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.

전체적으로 여행시장 자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. 그러나 그 성장은 해외여행 부문이 더 클 것이고, 따라서 여행수지도 더 나빠질 것이다. 국내여행 활성화가 시급하다.

<표1> 국내 및 해외 여행지 관심도

국내여행지 관심도 (% '더 커졌다')				해외여행지 관심도 (% '더 커졌다')			
	2017년	2016년	전년대비 %p		2017년	2016년	전년대비 %p
제주	64	63	+1	대양주	53	54	0
강원	52	50	+2	남유럽	53	49	+4
부산	46	44	+2	서유럽/북유럽	52	58	-6
전라남도/광주	29	32	-3	동유럽	49	50	-1
서울	29	25	+3	미국/캐나다	42	48	-6
경기/인천	27	21	+6	동남아시아	36	34	+2
전라북도	25	25	0	일본	35	32	+3
경상남도/울산	22	24	-2	홍콩/마카오	32	35	-3
충청남도/대전	19	19	0	남미/중남미	25	26	-1
경상북도/대구	19	19	0	중동/서남아시아	18	18	0
충청북도	17	16	+1	중국	16	22	-7
				아프리카	12	15	-3

Q. 요즘 '000'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전에 비해--

5점 척도: 많이 커졌다 (1) ~ 많이 작아졌다 (5), [% '더 커졌다' = '% 많이 커졌다' (1) + '% 약간 커졌다' (2)]

* (17년-16년)으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 계산했으며, 정수로 제시해 부정확해 보일 수 있음

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는 매주 여행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주례 조사를 2015년 8월 24일에 시작해, 2016년 연말 까지 71차(총 표본 수 21,300명) 실시해 왔습니다. 2017년부터는 이를 매주 500명으로 늘리고, 조사내용도 여행 행동 부문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. 조사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.consumerinsight.kr/travel 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“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·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의
보도자료는 인터넷(www.consumerinsight.kr/travel)에 수록되어있습니다”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.

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원/Ph.D
정경식 컨슈머인사이트 선임연구원/Ph.D

kimmh@consumerinsight.kr 02)6004-7643
jungks@consumerinsight.kr 02)6004-7627